

지루직언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진로체험 - 하교 (아나운서 체험, 진로콘서트)
• 진로 체험 •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그날저녁 진로체험으로 아나운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번 진로체험은 첫번째 진로체험과 달리 하교 내에서 활동하였다.</p> <p>내가 이번 진로체험을 아나운서 체험으로 신청한 이유는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꿈이 두가지였다. 초등학교 선생님과 아나운서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나운서 체험을 하면서 아나운서라는 진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고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고 싶었다.</p> <p>오늘 아나운서 수업은 이진명 아나운서 분께서 해주셨다. 예전에는 전주 MBC에서 뉴스방송을 하다가 복막염직으로 인해 잠시 쉬게 되었다. 현재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라디오 교통정보나 국악방송을 진행한다고 하셨다.</p> <p>아나운서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먼저 아나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알아보았다. 뉴스, 예능, 라디오-시사,음악프로그램, 내레이션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또한 아나운서를 하려면 입모양과 혀를 잘 움직여야만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다고 하셨다. 강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발음 연습 종이로 연습을 해보았는데 매우 어렵고 혀가 계속 꼬였다. 강사님께서 뉴스의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다.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진행할 때 "프롬프트" 라는 기계에 또는 대사를 보면서 촬영을 한다는 것이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사진을 보니 매우 신기한 기계 같았다.</p> <p>우리는 실제 앵커(아나운서)들이 읽는 대본을 읽어보았다. 이런 대본을 읽을 때에는 책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복식호흡을 하며 자연스럽게 읽으라고 하셨지만 쉽지 않았다. 강사님께서 직접 읽어보았는데 아나운서라 그런지 마치 뉴스의 한 장면을 보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톤이 비슷한 것 같아 신기했다.</p> <p>'왜 뉴스에서나 TV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쓸까?' 라고 생각을 한적이 있었다. 이 궁금증을 오늘 풀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한자어를 쉽게 풀어쓰게 되면 말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한자어를 쓴다고 말씀해 주셨다. 뉴스를 보고 사회정치를 알기 위해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등 한자어는 중요한 언어인 것 같다고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더 열심히 배우야겠다고 다짐했다.</p> <p>또 아나운서 수업을 하면서 아나운서 강사님께서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셨다. 그중 하나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경험담이 있었다. 바로 강사님께서 아나운서 시험이 있다면 어디든지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20년을 넘게 시험을 보면서 계속 떨어졌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었다고 하셨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포기하지 않고 시합을 본 덕분에 전국 MBC에 불렀다고 하였다. 여기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안되는게 없다. 포기하지 말자!" 라는 교훈을 갖게 되었다. 또 면접을 볼 때나 자기소개를 할 때 처음 한마디를 가장 인상적이게 말하라고 하였다. 평범하게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것보다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상적일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이번 진로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 진짜 많은 것 같다. 또 땀방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상캐스터라는 직업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 진로 콘서트 •

진로 체험을 마치고 진로콘서트에 참석했다. 진로콘트는 두문의 진행자에게서 진행해 주셨는데 너무 진행을 잘해주는 것 같았다. 진로콘서트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와 '노타링'에 나온 프리스타일 축가티스트 분과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온 플리연주가 분께서 오셨다.

프리스타일 축가티스트 라는 직업을 들어볼 적이 없어 이 직업에 대해 생소하지만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었다. 이 직업은 축구를 이용해 몸으로 묘를 부리는 직업 같다. 축공으로 하는 묘기를 볼 때는 볼직히 수위보였다. 하지만 직접 해보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린다.

플리연주가께서 일반식물을 가지고 오셔서 즉석에서 플루트를 파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약간 신기한 것 같았다. 나는 지금까지 플리라는 소리가 한음밖에 안 날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 밖이었다. 플리로 다른 음을 낼 수 있고 게다가 음악에 맞춰서 플리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더욱 놀란 것은 플리연주가께서 원래 플리연주가가 아니셨다는 것이다. 원래 전에는 고학자로 옛날의 돌칼도 발원하시고 그러셨는데 집안의 대를 이어받아 독학으로 배워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학으로 배워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나도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플리를 한번 불러 보고 싶다.

다음 차례로는 이전시간인 진로체험 때 배운 경호체험 팀과 '치어리더 팀'이 시합을 보였다. 경호체험 팀이 경호를 가르쳐준 관장님과 사범님을 경호(화술)로 막는 시합을 보였는데 조금의 연기가 덧붙여지기는 하였지만 잘하는 것 같았다. 요즈음 특히 여성에 대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신의 몸 자신이 지켜야하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이런 호신술을 배워놓으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다음 치어리더 팀은 노래에 맞춰 응원을 선보였는데 시간 30분 만에 배웠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한 것 같다.

'진로' 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렵고 광범위한 것 같은데 '진로'와 '콘서트'가 합쳐지니까 더 재미있게 '진로'라는 것에 다가갈수 있었던 것 같다.

지리진언 체력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레크레이션 강사, 진로 Talk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10월 11일 수요일 나는 오늘 학교에서 내 생애 2번째 진로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번 진로체험은 1번째 진로체험보다 더 알차게 보내기로 다짐했다. 이 체험을 통해 정말로 내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할 지도 생각해보기로 했다. 특히나 1번째 진로체험이 외낙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더 재미있고 신랄지 기대된다. 얼마 전 나는 어떤 진로체험을 할 지 고를 때 경료원이 정말로 하고 싶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꿈을 보호하는 호신술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지 경쟁률이 높아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진행을 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다.</p> <p>평소에 나는 말이 많고 조리있게 잘해서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딱 적합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때 한 결정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내 적성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레크레이션 강사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첫인상이 기가 많고 활발해 보였다. 특히 11반에 조성민이라는 친구가 가장 특출했는데, 성민이는 말도 재미있고 조리있게 잘했고 리액션도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도 해서 오늘 레크레이션 강사로 진로체험을 온 친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선생님은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면 성민이처럼 자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성민이를 장난끼러기 내 친구라고만 생각했지만 오늘만큼은 본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이 가장 처음에 했던 활동은 자기소개하기였다. 아는 친구들도 많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니 자기소개를 통하여 어색함을 풀어보자는 선생님의 아이디어였다. 우리들은 증이에 자신의 이름부터 시작하여 사는 곳, 특기, 성격, 취미, 장점과 단점, 좋아하는 것 등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적어냈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무언지 않게 내가 뽐히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 발표를 많이 해서 이런 것쯤은 겁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앞에 나와보니 엄청 긴장되고 떨렸다. 게다가 먼저 뽐힌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더욱더 긴장됐다. 그래도 발표를 할 때는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자기소개를 통해 어색함을 풀고,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레크레이션 강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 우리들은 여러가지를 배우게 됐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흐름'이라는 두글자였다. 레크레이션 강사들은 좋은 흐름을 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특히 분위기라는 것을 만들어 흐름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재미있는 게임, 신나는 노래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든다. 흐름이 끊기면 사람들의 흥미가 줄어들니 강사들은 자신들의 끼를 이용해서라도 흐름을 이룬다. 이것을 배우고 나니 레크레이션 강사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니 2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렸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들은 선생님과 작별인사를 하였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고 얻어간 것도 많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진로체험을 끝낸 후 전교생들이 강당에 모여 진로 Talk라는 프로그램을 하였다. 이 활동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듣고 유명한 사람들의 공연도 보고 전 시간 진로체험 때 연습했던 친구들의 공연도 보면서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MC는 방송국의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로</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프로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고 재치도 있었다. 덕분에 우리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우리들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몸도 풀고 반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스타킹,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력이 있는 축구프리스타일러의 공연을 보았다. 축구공을 마치 자기 몸의 일부라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고 게다가 여유까지 넘쳤다. 나는 그 공연을 보고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길래 저렇게 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원래 막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마음을 먹어 엄청나게 노력을 하니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두번째로 본 공연은 폴피리로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저렇게나 폴피리 소리가 아름다운 지도 몰랐고 즉석에서 고른 곡으로 불렀던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2가지 공연을 본 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진로처럼 2시간을 이용해 연습한 친구들의 공연을 보았다. 호신술과 치어리딩이었는데 둘 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 멋진 공연을 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로 Talk라는 프로그램도 끝나고 즐거웠던 진로체험활동도 다 끝나게 되었다. 나는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꿈에 대해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것이든 열심히 노력하여 꼭 이룰 것이다. 평소에는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데 이런 시간을 만들어준 학교에게 정말로 고맙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내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다.

지리치어 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1부>: 우주항공(글라이더) / <2부>: 진로 Talk 콘서트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활동'으로 '글라이더 만들기' 부스에 들어갔다. 글라이더 만들기 키트를 받고 설명서대로 만들었다. 먼저, 스티마로플 보체에 양쪽 날개를 끼우고 고정시킨다. 주 날개와 보조날개 모두 그렇게 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동력원인 '프로펠러'를 장착한다. 그 후, 주 날개는 각도 15°로 구부리고, 스티커를 붙여 고정했다. 그리고, 1층 융통사당에 나가서 비행기를 날려봤다. 내가 너무 세게 날려서인지 가미가제 특공대마냥 땅에 박아버렸다. ('가미가제 특공대'는 강자님 아이디어다. 강자님이 수업내내 재미있는 유머를 날리셔서 수업 분위기가 산것 같다.)</p> <p>그리고, 수업도중, 비행기에 대해서도 배웠다. 비행기가 날수 있는 조건이 기억에 남는다. 공기등의 물결의 저항인 항력보다는 비행기의 추력이 더 커야 하고, 중력보다는 위로 뜨는 힘인 양력이 더 커야 한다. '양력의 원리도 알려주셨다. 양력에는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된다. 베르누이 원리란, '유체 (흐르는 유체 등 물질)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을 감소한다'는 정리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정제로 아래쪽은 압력이 크게 만들고, 위쪽은 압력이 작게 만들어서 아래쪽 공기가 위로 상승하려는 힘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이다. 강자님은 마지막으로,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텐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한 몫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다.</p> <p>1, 2교시는 그렇게 끝났고, 3, 4교시에는 강당에서 진로 Talk 콘서트가 열렸다. 축구 프리스타일러 이운영, 플피리연주가 정준상씨가 초청되어 있었다. 프리스타일러 '이운영'씨는 세상에 이런일이, 스타킹 등 10개 이상의 방송에 출연하셨다고 한다. 이분은 공이 물으로 굴러가는 느낌을 줄 정도로 공을 잘 다룬다. 그리고 이운영씨는 내가 작년까지 다녔던 유소년 축구클럽 코치님이시다. 이것도 인연인지라 인사라도 한 번 드리고 싶었지만, 제각도에 공연이 있다고 하셔서 인사는 못 드렸다. 이제 평생 못볼지도 모르는데, 괜한 중이생겨 아쉬웠다. 그 다음은 세상에 이런일이에 출연하신 '정준상'씨의 무대를 보았다.</p>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나우랄데 없는 '자극이 평범한' 나뭇잎을 즉석에서 떼어내고 연주를 하는데, '저게 가능 한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유자재로 음을 바꿔가면서 플피리를 연주하셨다. 플피리를 부는 방법은 나뭇잎에 입을 대고 단소를 불듯 불면서 잎을 진동시켜 소리가 나게 하는 원리이다. (말만듣지 어렵다...) 공연을 보면서 이원영씨, 정준상씨 모두 자기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아 노력하시고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두분 모두 우리에게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조언을 해 주셨다. '하면 되고, 안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부딪혀보라고 하셨다. 두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싶다. 그리고, 코서트 진행자이신 MC '안정진' 씨와, 방송인 '유민경' 씨에게도 정말 감사하다.

자유학기제를 맞아 '진로 직업 체험'을 했는데, '꿈'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경험해봐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자신의 진로가 더욱 확실해진다. 이번 활동도 그 경험중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해보기로' 했다. 많이 경험해보고 부딪혀본다면 내 미래의 길이 트일 것이다.

지리지어 워크숍 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전주온빛중학교 1학년 10반, 강당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나는 오늘, 1,2교시에 1학년 10반에서 농업에 관한 주제로 전문체험을 했고, 3,4교시에는 1학년 전체가 강당에 모여 '진로 TALK (토크쇼)'라는 행사를 했다. 먼저 1,2교시에는 전북대학교에서 현재 농업분야에서 박사과 일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농업학과를 졸업한 '김지형'이라는 분께서 농업의 현황과 농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셨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5000만명)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64%이다. 이 말을 듣고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100명중 64명 정도 농사를 짓고 있어 다치한번 크게 놀랐고, 이 사실을 새로 알게되어 나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어 기뻐했다. 그 다음으로 새로 알게된 사실은 바로 '세계에' 분포하는 모든 논,의 평수와 우리나라의 전체 논,의 평수, 그리고 그중 농경지가 차지하는 평수이다. 지금 세계에 분포하는 모든 논,의 평수는 약 134억ha이다. 1ha는(100mX100m), 즉 100m²이다. 하지만 이 100m²이 134억 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놀랐다. 그 134ha의 논중 996만 ha가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그중 640만ha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다. 나는 이 사실들을 알기전 우리나라는 단지 동고서저 지형일뿐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런 논,의 평수나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논,의 평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문체험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게되어 뿌듯했고, 나의 지식이 되어 정말 좋았다. 그리고 2교시에는 김지형 선생님께서 농업 얘기를 조금 한 후,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김지형 선생님께서 사업가의 태도중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꼭 성공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나서 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위와같은 신념(생각)을 가져야 하겠다고 마음먹게 느꼈고, 앞으로 계속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고 달려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3,4교시에는 1학년 전체가 강당에 모여서 '진로 TALK (토크쇼)'라는 공연을 했는데 그중 나에게 감명깊고 마음에 와닿았던 인물 두분이 계셨는데 한분은 축구 아티스트 '이영원'님과 폴피리 연주가</p>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정준상님 이었다. 그 두분의 말씀을 다 듣고나 두분의 공동점이 있었는데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나는 단지 꿈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옳로써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꿈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겨 정말 뿌듯했으며, 고진감래(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노력은 결과(꿈)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 깊게 느꼈다. 나는 옳로써 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 정말 좋았고,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만나 그들의 꿈에 대한 사연을 들을 수 있어 내 인생에 매우 특별한 날 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나도 나의 진로(꿈)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축구 아티스트 '이영훈' 님이 말씀해 주신 '하면 되고, 안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머릿속에 깊이 유념해 두어 힘들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내 꿈(글에서 말하는 구글러가 되겠다)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어 꼭 내 꿈을 꼭 이루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방송구성작가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나는 방송구성작가를 선택했다. 평소에도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고 방송국 같은 대중적인 것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구성작가는 유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닌 딱 내가 좋아할만한 직업이었다.</p> <p>먼저 방송국에서 일하는 방송구성작가가 되려면 다른 것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신문이나 책을 읽고 TV도 보아야 생생하고 사실적이게 글을 쓸 수가 있다고 작가님이 그러셨다. 실제로 작가님께서 경험을 쌓으려고 매일 신문이나 책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접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글도 많이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일단 작가로 일을 하면 처음엔 리서처(막내작가)로 일하다가 서브작가로 경력을 쌓고, 그다음엔 코너메인작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메인작가 된다.</p> <p>작가님께서서는 작가가 하는 다양한 일들을 알려주셨다.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하는 멘트나 컨셉 같은 것들을 다 짜야하고 라디오에서 하는 말들도 다 매일매일 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전화로 섭외도 해야 하는데 그때 나는 작가가 글쓰기능력에 섭외능력, 설득력까지 있어야하는 만능이어야한다고 느꼈다. 때로는 프로그램에 섭외당한 사람에게 질문할 질문지도 써야하고, 가끔씩 라디오에서 나오는 퀴즈도 써야한다.</p> <p>작가님께서서는 작가가 좋은 점도 많이 말씀해주셨다. 방송을 하다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셨다. 실제로 작가님께서 워너원의 박지훈도 보셨다 한다. 그리고 연예인과 친해지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사인과 CD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작가님께서서는 자신이 쓴 글이 방송을 통해 대중으로 나가면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다.</p> <p>하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글을 쓰다보면 시간 나만 거슬러 올라간 듯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인내심과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피곤하면 글이 잘 안 써질 텐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작가에게 필요한건 정말 많구나를 느꼈다. 문화생활을 열심히 해서 글을 잘 쓰는 것이 문제인데, 새벽까지 일도 하고. 나라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작가에서 제일 안 좋은 점이 시간을 딱딱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1초라도 늦으면, 게다가 생방송이면 방송사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된통 혼날 텐데, 난 혼나는 게 싫다.</p> <p>나는 진짜 작가가 와서 나를 설명했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만약 내가 작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작가가 되었다면, 나는 미래에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작가의 좋은 면만 보지 않고 안 좋은 면도 보아 방송구성작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정말 유익한 2시간 이었다.</p>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1학년 7반 교실 (경호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나는 경호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학년 7반 교실에 갔다. 처음 교시에는 먼저 경호원과 경호원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신상명세와 고객의 경호내용을 확인하고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경호방법을 선택하여 경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였다. 경호원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인 체력과 운동신경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 공간 지각력 등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과 책임감, 사명 의식, 인접성 등도 필요했다. 또한 나오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희생정신과 협동심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경호원이 이수해야 하는 정규교육과정은 원래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여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호비서 행정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유리하다고 한다. 경호원이 되기 위한 훈련은 사설학원 등에서 경호원이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시에 경호원과 경호원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 후 2교시에 약간의 경호 방법에 대하여 배웠다. 처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V.I.P에게 접근할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경호하는 방법이었다. 시험은 선생님 그 분이 해주셨다. 시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있었었다. 시험이 끝난 후, 직접은 실습을 해 보았지만 역시 한 번보고 따라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 동안 옆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주셨다. 그랬더니 이해가 훨씬 잘되면서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었다. 두번째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이 V.I.P에게 접근할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경호하는 방법이었다. 이것도 시험이 끝난 후 실습을 해보았다. 마지막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V.I.P에게 접근할 때 도구를 사용해서 경호를 하는 방법이었다. 도구를 사용해서 경호를 하는 것이다 보니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험을 보고 실습을 하니 어느정도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강당에서 시험을 보일 사람을 물어보셨다. 그래서 나와 정희가 손을 들었고 우리는 마지막에 실습한 방법을 시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악상 강당에 들어서니 아까 손 들었던 자신감은 순데간데 사라지고 매우 긴장을 하게 시작하였다. 그래도 '배운 대로만 하면 될거야. 배운 대로'라고 생각하니 약간 긴장이 풀렸고, 유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호에 대하여 가르쳐준 선생님이 '숙고했어.'라고 알려주셨으니 왠지 Q를 북돋움이 생겼다. 오늘 이렇게 경호에 대하여 배우고 나니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경호 방법 실습과 시험을 통하여 경호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다리만 다치지 않았더라면 경호 방법 실습과 시험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너무 아쉬웠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